

“ 선을 넘은 예배자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 다 같이
- * **찬 송** : 자유롭게 / 다 같이
- * **합심기도** : 오늘의 구역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모인 장소의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 * **대표기도** : 지난 주에 예배드린 가정의 가족 중에서 한 분
- * **성경봉독** : 사무엘상 13장 11~12절 말씀

▶ A. 구역공과 ◀

1. 지난 한 주간동안 살면서 가장 감사하게 느꼈던 일이나, 주일영광예배 때 나눈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사울은 “백성이 흩어지고, 사무엘이 늙고, 블레셋이 몰려오는” 상황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어겼습니다. 나도 사울처럼 부득이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3. 사울은 제사를 목적이 아닌 **‘군사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는 예배인지 돌아보고 나눠봅시다.
4.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마지막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불안과 조급함이 사울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결국 인내하다가 무너지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견디기 위해 우리 삶에 필요한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 B. 공동체 성경읽기 ◀

월요(창13~15장) 아브람은 롯과의 갈등 속에서도 양보를 선택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땅의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전쟁 후에도 아브람은 세상의 보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습니다. 하나님은 별을 보여주시며 자손의 언약을 주시고, 아브람은 이를 믿음으로 받아 의로 여김을 받습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화요일(창 16~18장) 사래와 아브람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돌보시며, 아브람과 사래의 이름을 바꾸시고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환대하고, 이삭의 탄생 약속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더딤 속에서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수요일(창 19~21장)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지만, 롯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고, 웃음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삭의 탄생 이후 하갈과 이스마엘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목요일(창 22~24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며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하나님은 준비하신 제물로 응답하십니다. 사라는 죽고,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비됩니다. 믿음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금요일(창 25~26장) 야곱과 에서는 태중에서부터 다투며, 장자의 명분이 가볍게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은 죽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이삭은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머물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토요일(창 27~28장) 야곱은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얻고, 에서는 큰 상실을 겪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벧엘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일(창 29~30장)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으며 긴 세월을 보냅니다. 사람의 계산과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태어나며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기초가 놓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복잡한 관계와 한계 속에서도 진행됩니다.



*** 성경을 읽고 난 후 각자 느낀 점을 나눕니다.**

*** 합심기도 :**

1. 조급함과 불안이 밀려올 때, 상황 논리보다 말씀을 우선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2. 예배와 신앙을 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 삼아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3. 시험의 순간에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말씀의 선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영적 분별을 주옵소서.

*** 찬송 및 헌금 :** 찬송가 366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역헌금을 드리겠습니다.

*** 봉헌기도 및 주기도문 :** 드린 예물을 위해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역헌금은 해외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